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李 浩 權

Abstract

Lee, Hokwon. 2008. 11. Time-Based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Joseon's Publication of *Hangeul Literature*. *Korean Linguistics* 41, 83-114. This paper divides the history of *Hangeul* literature published in Joseon into five periods, and investigat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t in terms of the periods. In the 1st period (1443~1469 A.D.), from the creation of *Hangeul* to the days of King Yejong, transl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by the Royal family an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occupied the majority. In the 2nd period (1470~1592), from the days of King Sejong to the time just before Japanese Invasion in 1592, Buddhist scriptures and edificational books began to be published in provinces, and translations of Confucian scriptures were pu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3rd period (1592~1724), from the breakout of the Japanese Invasion to the days of King Gyeongjong, military books, medical books, and book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were intensely published for the practical need after the war. In the 4th period (1725~1800), the day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name of this period, Joseon's Renaissance indicates, various kinds of *Hangeul* literature were published in many disciplines. In the 5th period (1801~1894), from the days of King Sunjo to the Gabo Reform in 1894, as the publication of commercial novels were in vogue among general publics and a lot of translations of the Western Christianity books were published while traditional translations of Chinese classics were declining, *Hangeul* literature began to show the new features of renovation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주제어: 한글 문헌(*Hangeul literature*), 불경(Buddhist scriptures), 교화서(edificational books), 경서(Confucian scriptures), 역학서(textbooks for foreign language), 의학서(medical books), 병학서(military books), 방각소설(commercial novels)

* 이 글은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2008. 8. 17,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주제 발표한 논문 “한글 문헌의 역사: 刊本을 중심으로”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글 문헌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43년(세종 25)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로 조선 말기까지 많은 한글 문헌이 간행되었지만, 한글 문헌은 한문 문헌에 비하여 양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공식적인 문자로서의 한자의 지위는 한글 창제 이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글 문헌이라 하더라도 한글만으로 간행된 문헌은 무척 드물다. 그 대부분은 흔히 언해서라고 불리는 한문의 번역서로서 한문 원전이 함께 실리고, 언해문 또한 한자가 혼용되는 이른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한문 문헌을 보조하는 역할로서의 한글 문헌의 위상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다양화되어 갔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조선시대 한글 문헌의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문 또는 외국어의 원전과 함께 한글이 사용된 문헌뿐 아니라, 한자의 훈과 음을 달기 위하여 한글이 사용된 문헌, 그리고 한문 원전의 일부 어구나 어휘에 한글을 부기한 문헌을 모두 포함한다. 곧 한글이 들어 있는 문헌은 모두 한글 문헌으로 다루는 것이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부터 갑오경장까지 간행된 한글 문헌으로 한정한다. 하한선을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으로 잡는 것은, 이때부터 한글이 적어도 법적으로는¹⁾ 공식적인 문자생활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 공식적인 지위를 얻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우선 그 문헌 간

1) 법률과 칙령은 모두 한글로써 으뜸을 삼되 한문의 번역을 붙이며, 혹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1894. 11. 22. 공포 公文式 제14조, 安秉禧(2007: 217)에서 재인용).

행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한글 문헌 간행의 경향과 간행된 한글 문헌의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제시된 개별 문헌의 연대는 원칙적으로 편찬이나 인쇄의 연대가 아닌 출판, 간행의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

2.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 구분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450여 년 동안 간행된 한글 문헌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는 끊임이 없이 꾸준한 것이지만, 역사적 변천 과정을 繼起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 구분은 편의적인 世紀別 구분이나, 한글 문헌을 주로 다루는 기왕의 국어사 시대 구분과는 다르다. 넓은 의미의 국어학사 시대 구분이 참고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글 사용의 확대와 출판 문화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글 문헌에 대한 시기 구분은 최현배(1942/1961)과 李崇寧(1978)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전자는 “한글 쓰기의 번짐[發展]”과 “한글 갈기[研究]의 피어남” 역사를 아울러 여섯 시기로, 후자는 “언해사업의 시대적 경향”을 세 시기로 각각 나누어 한글 문헌의 역사를 다루었다.²⁾

본고의 시기 구분은 대체로 최현배(1961)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였다.³⁾ 제1기~제3기의 구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최현배(1961: 53)에서

2) 최현배(1961)은 1. 한글 창제 시기(세종~세조), 2. 한글 정착 시기(성종~임진왜란), 3. 한글 변동 시기(임진왜란~경종), 4. 한글 간편화 시기(영조~갑오경장), 5. 한글 각성 시기(갑오경장~8·15 해방), 6. 한글 대성 시기(8·15해방~무궁한 미래)로 나누었고, 李崇寧(1978)은 1. 불경위주의 언해사업(세종~세조), 2. 언해사업의 다양화(성종~선조말), 3. 생활지도서와 외국어 학습서로의 전환(광해군 이후)으로 나눈 바 있다.

제4기 “한글 간편화 시기”(영조~갑오경장)라 한 것을 두 시기로 나누어 제4기(영·정조 시기)와 제5기(순조~갑오경장)로 구분하였다. 한 시기에 배당되는 기간과 함께 한글 문헌 간행의 질적·양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과 함께 해당 기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제1기 (요람기) : 훈민정음 창제~예종 (1443~1469년)
- 제2기 (성장기) : 성종~임진왜란 직전 (1470~1592년)
- 제3기 (변동기) : 임진왜란~경종 (1592~1724년)
- 제4기 (융성기) : 영조~정조 (1725~1800년)
- 제5기 (변혁기) : 순조~갑오경장 (1801~1894년)

제1기는 세종 25년(1443)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로부터 시작하여 성종 즉위(1469) 전까지에 해당한다. 세종, 문종, 단종, 세조조에 걸쳐 왕실과 간경도감의 불경언해서가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실을 중시하였다. 기간은 27년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한글 초기 문헌이 가지는 서지학적, 언어학적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예종조에 간행된 한글 문헌은 알려져 있는 것이 없으나, 시기 구분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 포함하였다.

제2기는 성종 원년(1470)으로부터 임진왜란(1592) 발발 전까지에 해당한다.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조에 걸치는 120여 년의 기간이다. 역사 특히 정치사에서 조선 중기의 시작을 중종조로 보기도 하므로, 성종과 연산군 시대를 앞선 1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출판문화사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여 이 시기에 넣었다. 한글 사용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한글 문헌이 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3기는 선조 후기의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광해군, 인조, 효종, 현

3) 이러한 시기 구분은 李浩權(2006)에서도 간략히 이루어진 바 있다.

중, 숙종, 경종조에 이르는 130여 년의 기간에 해당한다. 임진왜란을 시기 구분에 적극 반영한 것은 이 전쟁 이후 간행된 문헌이 이전에 간행된 문헌과 형태서지학적인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숙종조부터를 조선 후기로 부르는 견해가 있지만, 앞선 시기와의 기간 균형을 더 고려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제4기는 영조와 정조조의 76년간에 해당한다. 기간으로는 제2기와 제3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이 시기에 다양한 한글 문헌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실을 중시하여 별도의 독립된 시기를 설정하였다. 한글 문헌 중흥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5기는 순조 즉위년(1801)으로부터 시작하여 헌종, 철종, 고종의 갑오경장(1894)까지에 해당하는 94년간의 기간이다. 역사에서 흔히 조선 말기라고 부르는 시기이다. 앞선 시기에 비해 문화적으로 침체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한글 문헌의 새로운 간행이 많지는 않지만, 방각 소설의 성행, 그리고 서양의 천주교, 기독교 관련 한글 문헌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변혁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이다.

3. 한글 문헌 간행의 경향과 특징

3.1 제1기(요람기: 훈민정음 창제~예종)

3.1.1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최초로 간행된 한글 문헌은 1446년(세종 28)의 『訓民正音』(해례본)이다. 권말의 鄭麟趾 序文 일자가 9월 상순이므로⁴⁾ 실제 간행은 그보다 몇 달 늦었겠지만, 현전하는 한글

4) 『세종실록』 28년 9월 마지막 기사인 “是月訓民正音成”은 『훈민정음』 원고의 완성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보통 頒賜의 기록은 실록에서 명시적인 일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은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를 알리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문헌으로서는 유일하게 下向黑魚尾를 가진 版心과, 한글 글자체로 보아 시기적으로 어느 한글 문헌보다 빠르다.

이듬해인 1447년 『龍飛御天歌』(10권 5책)가 간행되었다. 같은 해 10월 16일 실록 기사에 『용비어천가』 550부를 頒賜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적어도 이때까지는 책의 간행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崔恒의 跋文이 그 해 2월에 되었는데, 발문을 쓴 시점을 원고 완성 무렵으로 본다면⁵⁾ 인쇄 완료까지 8개월 정도 걸린 셈이다. 『용비어천가』는 문장 단위의 한글을 보여주는 첫 번째 한글 문헌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한글로 지어진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한글 문헌의 개막을 알리는 이 두 문헌은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갑인자 활자로 간행하지 않은 점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활자본 간행을 위해서는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 사용된 한글 字母와 음절 글자를 위하여 활자를 새로 주조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책은 초기 간행 부수도 많았을 것이고, 그 뒤로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책이므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3.1.2 최초의 언해본은 『훈민정음언해』이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1459년(세조 5)의 『月印釋譜』의 卷頭に 수록된 것이 가장 오래지만, 1447년(세종 29) 『釋譜詳節』의 권두에도 合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해당 월의 마지막 기사에 덧붙여 있다.

- 5) 『용비어천가』의 본문 가사를 완성하여 세종께 올렸다는 실록 기사의 일자(1445. 4. 5.)와 이 책 箋文과 序文의 일자(4월)가 일치한다. 箋文 일자가 실록 기사와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서문의 일자도 같은 시기인 점에서, 본문의 원고가 완성된 이후 서문이 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주해를 덧붙여 현전본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진 것인데, 1447년의 跋文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있다. 『석보상절』 서문과 똑같이 한문 원문을 구절 단위로 나누어 한글로 독음과 구절을 달고 언해한 체재와, 언해문의 세부적 언어 사실의 일치 등은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석보상절』에 합철되었다면 갑인자 병용 한글 활자로 인쇄되었을 것이나, 단독 간행 여부는 알 수 없다.

3.1.3 이 시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의 주종은 무엇보다도 佛敎 관련 문헌이다. 모두 왕실 주관의 사업으로 편찬 간행되었는데, 가장 빠른 것이 1447년에 간행된⁶⁾ 『釋譜詳節』(24권)이고, 바로 그 뒤를 이어 간행된 것이 『月印千江之曲』(3권 3책)이다. 두 책 모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편찬의 순서로 보면 당연히 『석보상절』이 앞서지만 간행은 『월인천강지곡』이 앞선다는 견해도 있으나, 漢字音 표기의 비교에서 『석보상절』이 앞서 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安秉禧, 1992: 54). 그러므로 『석보상절』은 한글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문헌이 된다.

이들 두 책은 1459년(세조 5)에 合編되어 『月印釋譜』(25권)라는 이름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본문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 版下를 써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므로 새로운 한글 문헌이 된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그 서문에 따르면 한문의 번역이지만, 한문 원전이 함께 수록되지 않고 문체도 자연스러운 점에서 이 시기의 국어를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이 된다.

3.1.4 본격적인 불경 언해서의 간행은 1461년(세조 7) 6월 刊經都監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에 앞서 『蒙山法語諺解』(1460경)가 목판본

6) 수양대군의 서문 일자(1447. 7. 25.)에 따른 것이다. 활자본이므로 한글 활자만 미리 준비되었다면 목판본 간행에 비해서는 적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를 넘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편의상 1447년을 간행 연대로 본다.

으로 간행되었고,⁷⁾ 校書館에서 올해자로 된 『阿彌陀經諺解』(1461경)와 『楞嚴經諺解』(1461)가 간행된 바 있다.⁸⁾ 이들은 앞에서 본 왕실 주관의 불경 간행 사업에서 간경도감의 그것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의 특징을 가진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서는 모두 9종이다. 1462년(세조 8)의 『楞嚴經諺解』(10권 10책)를 필두로 하여, 1463년의 『法華經諺解』(7권 7책), 1464년의 『永嘉集諺解』(2권 2책), 『金剛經諺解』(1권 2책), 『心經諺解』, 『阿彌陀經諺解』, 1465년의 『圓覺經諺解』(11권 10책), 1467년의 『法語諺解』·『牧牛子修心訣諺解』(합부 1책)에 이르기까지 6년간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이들은 간경도감의 한문본 불경과 마찬가지로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다만, 한문본은 지방 사찰에 전래하던 책판을 보수하여 중간한 것도 있지만, 언해본은 모두 새로 새긴 것이다.

그런데 언해본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구결을 달고 번역하는 절차뿐 아니라 언해문에 방점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아야 한다. 더구나 창제된 지 겨우 15년 남짓한 새로운 문자로써 많은 분량의 언해문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⁹⁾ 그러나 이들 일련의 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예를 들어 『금강경언해』의 韓繼禧 跋文에 따르면, 1464년 2월 1일에 세조가 『금강경』번역의 뜻을 말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번역 원고가 5일 만에

7) 『몽산법어언해』를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책의 체재와 판식이 간경도감 언해서와 다른 점, 그리고 언어사실이 『월인석보』와 유사한 점에서 간경도감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본다. 志部昭平(1983) 참조.

8) 활자본 『아미타경언해』는 원문 구결에 방점이 있는 점에서 『몽산법어언해』의 체재와 공통되므로, 활자본 『능엄경언해』보다 상대적인 시기에서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安秉禧(1992: 234-7) 참조.

9) 1464년(세조 10)의 필사본 『上院寺重創勸善文』에서 漢字는 誤字가 없어도, 한글은 옳고 補寫한 부분이 많은 점이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최초의 활자본인 『석보상절』에서도 특히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補印되거나 補寫된 것이 간혹 보인다.

완성되었고, 간경도감에 명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책의 孝寧大君 跋文이 같은 해 2월이므로 원고 완성이 2월 중에 이루어졌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금강경언해』의 箋文 날짜가 같은 해 4월 7일이므로, 그 사이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는 당대의 고승과 학자가 대거 참여하고 앞 시대에 누적된 불교학 전통이 수립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와 아울러 막대한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간경도감판 불경언해서들은 체재와 내용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달고, 그에 해당하는 언해문을 실는 체재인데, 그에 따라 언해문은 원문과 그 구결을 의식한 직역으로 나타난다. 版式에 있어서도 行格은 1면당 9행 17자 또는 8행 19자의 두 가지 방식이 문헌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으나, 匡郭의 邊欄과 판심의 魚尾 등은 모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版下 작성과 版刻을 위하여 당대의 명필과 일류 刻手들이 총동원된 만큼, 우리나라 인쇄문화사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다.

3.1.5 이 시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으로 1448년(세종 30)의 『東國正韻』(6권 6책)과¹¹⁾ 1466년(세조 12)의 『救急方諺解』(2권 2책)가¹²⁾ 있었음을

10) 이러한 상황은 『영가집언해』나 『심경언해』에서도 비슷하다. 간경도감판에서의 跋文 일자를 원고 완성 무렵, 箋文 일자를 책의 간행 무렵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安秉禧(1998: 616-7, 특히 주 27) 참조.

11) 권두에 申叔舟의 서문(1447. 9. 하순)과 실록기사(9월 마지막 기사)에 의하여 편찬 완료 시점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간행되어 頒賜된 것은 그 이듬해인 1448년 10월이다(10월 17일자 실록 기사 참조).

12) 을해자로 간행되었을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후대의 복각본만이 남아 있다. 원간본의 간행 연대는 1466년(세조 12) 6월 13일의 실록 기사 “賜八道救急方各二件”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구급방’이 『구급방언해』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증할 수는 없으나 그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빼놓을 수 없다. 『동국정운』에서 규정된 한자음은 한글 창제 이후 15세기 말까지 모든 문헌의 한자음 표기에 적용되었으므로 한글 문헌에 미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사용된 한글 활자는 『훈민정음』(해례본)의 한글 자형과 일치하여 주목된다. 『구급방언해』는 실용서로서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문헌이 된다.

3.1.6 제1기의 한글 문헌은 모두가 초간본이자 동시에 중앙의 간행물이다. 왕실과 국가 기관의 주관으로 간행된 만큼, 당시의 발달된 인쇄문화의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의 초간본이라면 모두 오늘날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로 지정될 자격을 가지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특정 소수 사람들에 의해 편찬 간행된 만큼, 한글 표기법이나 언어사실에 있어서도 균질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다. 20여종의 한글 문헌이 간행되었지만, 대부분 관료와 관련 기관에만 제한적으로頒賜되었으므로, 이들 문헌이 널리 유포되지 못했을 것임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들 한글 문헌은 후대에 지방의 사찰에서 覆刻되어 유포되는 것도 많으므로 한글 보급과 한글 문헌 간행의 역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2 제2기(성장기: 성종~임진왜란 직전)

3.2.1 앞 시기의 불경 간행 사업을 주도했던 간경도감이 1471년(성종 2)에 폐지된 이후에도 불경의 언해는 왕실의 후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 나갔다. 1476년에 왕실의 施主로 『觀音菩薩呪經』이¹³⁾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1482년(성종 13)에는 慈聖大妃(세조비)의 명으로 『金剛經三

13) 眞言을 한글로 音譯한 최초의 책이다. 진언의 이름에 대한 한글 번역도 함께 실려 있는데, 현재는 江田俊雄(1934: 144)에서 그 書影만을 볼 수 있다.

家解』(5권 5책)와 『南明集諺解』(2권 2책)가 內需司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뒤의 두 책은 學祖의 발문에 따르면 세종, 세조조에 번역이 시작되었고, 체재면에서도 대체로 간경도감판 불경언해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간경도감 후속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85년(성종 16)의 『佛頂心經諺解』(3권 1책)와 『五大眞言(靈驗略抄諺解합철)』은 체재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앞선 불경 언해서들이 한문 원문과 언해문을 짝지어 싣는 방식인 데 비하여, 이들 책은 언해문이 한문본 뒤에 따로 붙어 있는 체재로 되어 있다.¹⁴⁾

1496년(연산군 2)에는 仁粹大妃의 命으로 學祖가 『六祖壇經諺解』(3권 3책)와 『眞言勸供諺解』·『三壇施食文諺解』(합부 1책)를 간행하였다. 한글 목활자가 사용된 점에서 서지학적으로도 소중하지만, 언해문의 한자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닌 현실 한자음이 달려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주목되어 온 한글 문헌이다.

3.2.2 이 시기에 불경언해서의 지방판이 다량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음은 한글 문헌 확산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서막은 간경도감 언해본의 覆刻으로부터 시작된다. 1500년(연산군 6) 경상도 합천 鳳栖寺에서 간행된 『목우자수심결언해』가 지방판 한글 문헌으로는 최초가 된다. 이후 1520년(중종 15) 경상도 안음 長水寺의 『영가집언해』, 1523년(중종 18, 간행지 미상)과 1547년(명종 2, 나주 쌍계사)의 『법화경언해』, 1553년(명종 8) 황해도 深源寺의 『심경언해』, 1558년(명종 13) 雙溪寺의 『아미타경언해』, 1575년(선조 8) 전라도 安心寺의 『금강경언해』, 『원각경언해』 등 대부분의 간경도감 언해서가 전국적으로 고루 간행

14) 이 두 책은 모두 앞의 원전은 목판본이고, 뒤에 합철된 언해본은 활자본이다. 『불정심경』에는 圖版이 들어가고, 『오대진언』에는 梵語 문자가 들어가므로 활자로 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체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되었다. 간경도감판 외에도 『몽산법어』(1521년 금강산 유점사, 1523 풍기 석륜암, 1525 황주 심원사 등)와 『월인석보』(1542년 광흥사, 1559, 1562년 무량굴, 1568년 회방사, 1569년 私家版)등은 지방 사찰의 주된 간행 대상이었다.

지방 사찰에서 처음으로 언해하여 간행한 불서도 나왔다. 1522년(중종 17) 『別行錄節要諺解』(전라도 고산 花岩寺)¹⁵⁾를 비롯하여 1545년(인종 1) 『父母恩重經諺解』(완주 私家版), 1560년(명종 15) 『六字禪定諺解』(평안도 숙천), 1567년(선조 즉위년) 『蒙山和尚六道普說諺解』(전라도 순창 鷲岩寺), 1569년(선조 2) 『禪家龜鑑諺解』(평안도 묘향산), 『七大萬法』(경상도 풍기 회방사), 1577년 전라도 순천 松廣寺와 1583년 경기도 용인 瑞峰寺의 『初發心自警文諺解』가 그 대략적인 목록이다.¹⁶⁾

간경도감판의 覆刻本들은 원간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刀刻과 인쇄 및 紙質에서 원간본의 그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15세기 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본문의 誤刻과 脫刻도 많은데, 방점의 경우는 극심하다. 특히 이 시기에 지방에서 언해하여 간행한 문헌들은 방점이 거의 무시되거나 완전히 폐기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불경언해서들이 한글 보급에서 차지한 역할은 적지 않다. 1569년(선조 2) 전라도 安心寺에서 간행된 『眞言集』에 실린 「諺本」만으로도 한글 보급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¹⁷⁾

이 시기로서 불경의 언해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된다. 중요한 불

15) 왕실 종친과 상궁 나인들, 그리고 민간의 시주로 간행되었다. 간행지는 함께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楞伽經涅槃品抄諺解』(낙장본)의 刊記에 따른 것이다.

16) 특히 16세기 중엽에 많은 불경언해서들이 간행된 것은 이미 한글 보급이 그 만큼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명종 즉위(1545년) 이후 文定王后(중종비)가 僧 普雨와 함께 불교 부흥 정책을 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이 『진언집』은 중간본이므로, 앞서 간행된 원간본에도 「언본」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은 이미 대부분 번역된 셈이므로, 이후로는 지방 사찰에서의 간헐적인 重刊만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3.2.3 이 시기에는 풍속의 순화와 교육·문예의 진흥을 위한 한글 문헌이 많이 간행되었다. 敎化書로는 여성 교육 관련 문헌이 가장 앞선다. 1475년(성종 6)에 간행된 인수대비의 『內訓』(3권 3책)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1573년(선조 6)의 중간본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¹⁸⁾ 기록상으로는 1481년(성종 12)의 『三綱行實烈女圖諺解』(不傳)가 있으나,¹⁹⁾ 1490년(성종 21)에 효자, 충신, 열녀를 각 35명씩 가려서 간행한 刪定本 『三綱行實圖諺解』가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 책의 속편이라 할 『續三綱行實圖』도 1514년(중종 9)에 간행되었는데, 한자음 중성의 ㅅ을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하여 『삼강행실도』의 체재와 형식을 그대로 본떴다. 이들 교화서는 그 뒤로도 수요가 많아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이는 한글의 주된 사용층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481년(성종 12) 중국 당나라 杜甫의 시를 언해하여 을해자로 간행한 『杜詩諺解』(25권 19책)는 최초의 한글 번역 시가서가 된다. 이 책 언해문의 한자에는 『동국정운』 이후의 한글 간행 문헌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다.²⁰⁾ 이어 1483년 성종이 徐居正 등에게

18) 이 밖에도 1532년(중종 27) 崔世珍이 『女訓』을 번역하여 간행하였다는 기록 “五衛將崔世珍 進譯女訓 傳曰 令校書館印出”(중종실록 27년 9. 12.)이 있으나 현전본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17세기 간행으로 추정되는 『여훈언해』가 현전하나 두 판본 간의 관계는 명확치 않다. 洪允杓(1993) 참조.

19) 1481년(성종 12) 3월 24일자 실록기사 “其印 諺文 三綱行實列女圖 若干帙 頒賜京中五部及諸道 使村婦巷女 皆得講習”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삼강행실도』의 언해는 세종조부터 이루어졌고 그 언어사실도 『월인석보』에 가까운 면을 보이므로, 1459년경에 이미 원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高永根(1991) 참조.

20) 『용비어천가』를 비롯하여 『상원사 중창 권선문』, 『두시언해』 등에 한자음이

명하여 『聯珠詩格』과 『黃山谷詩集』을 번역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²¹⁾ 현전본이 없어서 그 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6세기에 들어서는 지방에서도 교화서가 간행되었다. 한글 문헌의 지방 간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金安國이다. 1518년(중종 13)에 경상도에서 지방민의 계몽과 도덕심 고취를 위해 간행한 『二倫行實圖』, 『呂氏鄉約諺解』, 『正俗諺解』는 원간본으로서 지방에서 간행된 최초의 한글 문헌이 된다. 金安國의 동생 金正國도 황해도 관찰사로서 1519년 『警民編諺解』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이륜행실도』는 『삼강행실도』의 체재를 그대로 본떴으나 欄上의 언해는 순한글체로 바뀌었고, 뒤의 세 책은 모두 한문 원문에 借字口訣을 달고 순한글체로 번역한 공통점이 있다.²²⁾ 이들은 지방에서 간행되었지만 官版本이다.

어린이의 한자 교육을 위하여 한자 학습서에 한글로訓誨를 단 책이 나온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1527년(중종 22)의 『訓蒙字會』는 그 최초의 문헌이 된다. 특히 권두의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는 당시의 한글 학습의 일면을 보여준다. 선조조에는 『新增類合』(1574년 해주판, 1576년 중앙판)과 『千字文』(1575년 광주판)이 지방에서 간행되기도 하였고, 일명 『石峰千字文』(1583년)이 중앙에서 간행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3.2.4 일상생활의 실용을 위한 한글 문헌 가운데는 醫書의 간행이

달리지 않은 사실을 편찬자가 상정한 독자층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金完鎭(1972) 참조.

21) 命 徐居正 盧思愼 許琮 魚世謙 柳洵 柳允謙 以諺文翻譯 聯珠詩格 及 黃山谷詩集 (성종실록 14년 7. 29.)

22) 원문에는 借字口訣을 달고, 언해문에는 한글만 사용한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한글을 모르는 한문 사용층과 한자를 모르는 한글 사용층을 동시에 배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가장 앞선다. 이미 앞 시기에 『구급방언해』(1466)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갖추어진 구급서인 『救急簡易方諺解』(8권 8책)가 1489년(성종 20)에 간행되었다. 『구급방언해』와 마찬가지로 한문 원전에 구절을 달지 않은 것은 의서류 언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이 책은 언해문이 순한글체로 된 최초의 책이 된다. 중앙에서 을해자로 간행하였는데, 그 책을 곧바로 각도 감영에 보내어 복각하여 널리 퍼도록 하였다. 1497년(연산군 3)의 목판본 『神仙太乙紫金丹諺解』는 언해문에 방점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한글 문헌이 된다. 민간(서울)에서 간행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16세기 전반에는 특정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글 문헌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1517년(중종 12) 『瘡疹方撮要諺解』, 1525년 『簡易辟瘟方諺解』²³⁾, 1541년 『牛疫方諺解』, 1542년 『分門瘟疫易解方諺解』 등이 그것인데, 각 지역에서 해당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편찬된 것이다. 기근 극복을 위한 1554년(명종 9)의 『救荒撮要諺解』와 언해본은 아니지만 1538년(중종 33)의 『村家救急方』²⁴⁾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農事 관련 한글 문헌은 의외로 적다. 1492년(성종 23)의 『衿陽雜錄』에 穀物名을 한글로 적은 것이 있는 정도이다. 언해서로는 1518년(중종 13)에 김안국이 『農書』와 『蠶書』를 언해하여 간행하였다고 하나²⁵⁾ 전하지 않는다.

23)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578년(선조 11)의 을해자 중간본이 전한다. 원간본에는 방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간본에는 방점이 없다. 중앙의 활자본으로서 언해문에 방점을 갖지 않는 최초의 문헌이 된다.

24) 김정국이 전라도 남원에서 간행한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571년(선조 4)경 함경도 함흥에서 중간된 책이 전한다. 지방판으로서 ㄷ 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安秉禧, 1992: 538-9 참조).

25) 『중종실록』 13년 4월 1일 기사 참조.

3.2.5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한글 문헌, 곧 譯學書의 간행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1492년(성종 23)의 『伊路波』는 일본 문자의 독음 표기에 한글이 사용된 정도이지만, 전래의 중국어 학습서인 『老乞大』와 『朴通事』를 한글로 번역한 『鰙譯老乞大』(2권 2책)와 『鰙譯朴通事』(3권 3책)가 1510년대(중종조)에 崔世珍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한학서는 白話文 원문에 한글로 중국어의 正音과 俗音을 달고 그에 대한 언해문을 국한문 혼용으로 싣는 체재로 되어 있는데, 한자에는 독음이 달려 있지 않다. 대부분의 언해서가 원문을 문단 단위로 싣는 데 비하여, 여기서는 짧은 문장 단위로 싣었다.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체재는 이후의 역학서들에서 대체로 공통된다. 이들 漢學書에서 어려운 어구를 뽑아 설명한 『老朴集覽』과 중국어의 韻書 『四聲通解』(1517), 『續添洪武正韻』 등도 이 시기에 최세진에 의하여 편찬 간행되었다.

3.2.6 16세기 말엽에 유교 경전의 언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경서의 번역은 이미 세종조부터 추진되었으나, 그 이후로 몇 가지 口訣書를 간행하는 데 그쳤었다. 번역을 위해서는 구결의 확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文臣들 간에 그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불경의 언해보다 유교 경서의 언해가 무려 150년이나 늦어지게 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1518년(중종 13)의 『鰙譯小學』에서 『小學』이 번역된 적이 있으나,²⁶⁾ 본격적으로 경서의 언해 사업이 시작된 것은 1585년(선조 18) 校正廳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1588년(선조 21)에 『小學諺解』(6권 4책), 1590년에 四書의 언해 곧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4권 4책), 『孟子諺解』(14권 7책)가 모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같은 해에 『孝經諺

26) 『소학』의 언해는 이보다 앞서 『내훈』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解』가 弘文館 편찬으로 간행되었는데, 당시의 홍문관 관원은 상당수가 교정청에 겸직하고 있었고, 언해의 양식과 판식 등도 교정청의 경서언해와 일치하므로 교정청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번역소학』과 마찬가지로 한문 원문에도 한글로 독음을 달고 방점을 찍었는데,²⁷⁾ 번역 양식에 있어서는 의역인 『번역소학』과는 달리 철저한 직역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정청의 경서언해는 임진란 이후 속간되는 三經의 언해와 함께 官撰本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각도 감영 및 書肆에서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조선시대의 한글 문헌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되고 많이 읽힌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교 경전의 언해는 기본 경서의 언해에 그쳤다. 이것이 불경 언해서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유경의 언해는 초학자들의 표준적인 원전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고급 경서는 직접 한문 원전을 읽어야 할 것이므로 굳이 언해본이 있을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경의 언해서는 한문 사용층에 한글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3.2.7 제2기의 한글 문헌은 한편으로는 한글의 보급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보급된 결과의 파급 효과를 누렸다. 새롭고 다양한 한글 문헌의 간행과 더불어, 앞선 문헌의 重刊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오랜 시간을 끌어 온 숙원사업인 유교 경서의 언해가 간행되었으나, 모든 일이 완결되기 전에 임진왜란을 맞게 된다. 戰亂으로 많은 책이 散逸되어 제1기와 제2기에 간행된 책들은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이 흔치 않다. 이들 문헌이公私의 도서관에서 모

27) 이들은 원간본으로서 방점을 갖는 최후의 문헌이 된다. 원문 글자마다 한글로 독음을 달고 방점을 찍은 것은 원문 독송과 함께 규범적인 한자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편찬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귀중본으로 취급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3.3 제3기(변동기: 임진왜란~경종)

3.3.1 전란의 와중에 三經 곧 『詩經』, 『書傳』, 『周易』의 언해 원고 본까지 없어졌으나, 교정청이 다시 설치되고 1606년(선조 29)에 『周易諺解』(9권 6책), 1613년(광해군 4)에 『詩經諺解』(20권 10책), 그리고 『書傳諺解』(5권 5책)의 간행이 완료되었다.²⁸⁾ 앞 시기의 四書諺解와 똑같은 체재로 편찬되었으나 방점은 없어졌다. 이와 함께 1611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사서언해의 重刊도 이루어졌다. 전란으로 많은 서적이 없어져 구해보기 어려워짐에 따라, 긴요한 문헌들에 대한 重刊本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한글 문헌으로서는 위의 사서언해를 포함하여 『內訓』(1611), 『龍飛御天歌』(1612), 『訓蒙字會』(1613), 『四聲通解』(1614) 등이 이 때 다시 간행되었다. 이들은 목판본 또는 훈련도감 목활자로 간행되었는데, 用紙나 인쇄의 質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3.3.2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현실적인 필요가 많았던 것은 醫療·救荒書들이었다. 이 시기 한글 의료서의 편찬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御醫 許浚이다. 1607년(선조 40)에 『諺解救急方』(2권 2책), 이듬해 『諺解胎產集要』와 『諺解痘瘡集要』(2권 2책)가 모두 그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나, 곧바로 覆刻되어 널리 배포되었다. 이후 1613년(광해군 5)에는 전문 의학서 『東醫寶鑑』(25권 25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한문본이지만, 그 「湯液篇」(3권 3책)에 藥物名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 있어 한글 문헌에 포함된다.

28) 『주역언해』는 목판으로 『시경언해』는 훈련도감 목활자로 각각 간행되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전언해』의 원간본은 보이지 못하였다.

이전 시기에 간행되었던 『간이벽온방언해』가 1613년(광해군 5)에 내의원에서, 『우역방언해』가 1636년(인조 14)에 해주에서 각각 重刊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1653년(효종 4)에는 기존의 벽온방류 서적을 증감 편찬하여 언해한 『僻廬新方諺解』가 나왔다. 구황서로는 1639년(인조 17)에 金堉이 『救荒撮要』와 『僻廬方』을 합편 언해한 『救荒僻廬方諺解』를, 1660년(현종 1)에는 申澍이 자신이 지은 『救荒補遺方』을 『구황촬요』에 합편한 『新刊救荒撮要諺解』를 각각 간행하였다.

3.3.3 전란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 잡고 도덕심을 고취하는 것도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다. 1617년(광해군 9) 『東國新續三綱行實圖』(17권 17책, 별책 1책)의 간행은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²⁹⁾ 특히 임진왜란 이후 旌表를 받은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이 많이 추가되었는데, 막대한 간행 경비로 인하여 지방 5도에 분담시켜 간행하였다. 앞선 시기의 行實圖類 언해서와 달리 언해문을 본문 안에 넣는 등 체제가 달라졌다. 생활 예법의 정비를 위하여, 주자의 『家禮』를 언해한 『家禮諺解』(10권 4책)가 1632년(인조 10)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되었다. 1658년(효종 9)에는 李厚源이 『警民編諺解』를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앞서 간행된 원간본과 그 중간본을 보지 못하고 한문 필사본을 구하여 이 때 새로 번역한 것이다. 그에 따라 원간본과는 달리 원문에 한글 구결이 달리고, 언해문도 국한문 혼용체로 되는 등 전혀 새로운 체제의 책이 되었다.

3.3.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계속된 전란을 겪으면서 兵學書의 언해본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임진왜란 중 『武藝諸譜諺解』가 편찬되어 1598년(선조 31)에 간행되었고, 1610년(광해군 2)에 이 책에

29) 현전본 가운데 1618년 정월의 內賜記를 가진 책이 있으나, 『광해군일기』(9년 3. 11.)의 기록에 따라 1617년의 간행으로 본다.

서 누락된 내용을 담은 『武藝諸譜繙譯續集』이 훈련도감에서 간행되었다. 군사 훈련 교범인 『練兵指南諺解』도 1612년 함흥에서 간행되었는데,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무예서와 달리 순한글체로 언해가 되었으나 版刻이 거칠다. 『兵學指南諺解』(5권 1책)가 1649년(효종 즉위년)에 간행된 이후 후대에 여러 차례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고전 병법서인 『三略』의 언해가 편찬 간행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³⁰⁾ 1693년(숙종 19)에 간행된 『陳法諺解』는 본문이 한문 원문 없이 순한글 언해문만으로 되어 있어 체재상 특이하다. 화약 제조법과 화약 무기에 관한 『火砲式諺解』가 1635년(인조 13)에 『新傳煮取焰硝方諺解』와 합철되어 간행되었고, 같은 계통의 『新傳煮硝方諺解』가 1698년(숙종 24)에 軍器寺에서 간행되었다.³¹⁾

3.3.5 전란 이후, 주변 국가와의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외국어 학습서도 많이 편찬 간행되었다. 사역원에서 通事를 양성하기 위해 편찬된 교재들인데, 중국어 학습서 곧 漢學書가 이전 시기에 이어 주종을 이루었다. 1670년(현종 11)의 『老乞大諺解』와 1677년(숙종 3)의 『朴通事諺解』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 시기의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를 참고하여 새로이 간행한 것이나, 1721년(경종 1)의 『伍倫全備諺解』(8권 4책)는 이 때 처음 간행되었다. 중국어 사전 『譯語類解』(2권 2책)도 1690년(숙종 16)에 나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일본어와 만주어 학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어 학습서 곧 倭學書로는 1676년(숙종 2)에 교서관에서 간행된 『捷解新語』(10권 10책)가 그 최초의 對譯書가 된다. 이 책은 康遇

30) 『三略諺解』 현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충청도 洪州에서 간행된 『新刊三略諺解』(1711)인데, 李商徵의 서문에 그보다 앞서 언해본이 여럿 있었다 한다. 남권희(2002) 참조.

31) 이 때 간행된 『신전자초방언해』는 전하지 않고, 1796년(정조 20) 군기사에서 중간한 책이 널리 알려져 있다.

聖이 1630년을 전후하여 편찬 완료하였으나 실제 간행은 그보다 늦게 되었다. 일본어 어휘집인 『倭語類解』도 18세기초에 편찬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 만주어 학습서 곧 淸學書로 『八歲兒』, 『小兒論』, 『三譯總解』(10권 10책), 『淸語老乞大』(8권 8책)가 1704년(숙종 30)에 간행된 바 있다.³³⁾

3.3.6 이 시기에는 전란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경서언해 사업이 완료되고, 특히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의학서, 구황서, 교화서, 역학서 등의 한글 문헌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戰後 수습을 위한 시급한 책들이 한글로 간행되었음은 한글 문헌의 역할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한글이 한문처럼 公的인 영역은 아니지만 문자생활에서 제 나름대로 부동의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3.4 제4기(음성기: 영조~정조)

3.4.1 이 시기에 들어 특히 교화서의 重刊 사업이 활발해졌다. 우선,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등 이른바 行實圖類 언해본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번역되어 1726년(영조 2)부터 1730년에 이르기까지 各道 監營에서 간행되었다. 이는 1581년(선조 14)의 改譯本과 함께 행실도류 언해서의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었다. 1581년판도 새로운 번역이지만³⁴⁾ 그 이전판과 마찬가지로 의역으로 된

32) 『왜어유해』의 현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780년대 초에 간행된 것이다. 현전본 『왜어유해』의 간행 연대 추정에 대해서는 鄭光(1988: 137-141) 참조.

33) 이 시기에 간행된 淸學書는 모두 원간본이 전하지 않는다. 다음 시기의 중간본을 통하여 그 간행을 알 수 있을 뿐인데, 그 중간본에 원간의 刊記가 1703년(숙종 29)으로 되어 있으나, 원간 서문은 1704년의 年記를 가지고 있어 이때의 간행으로 추정된다.

데 비하여, 이들은 원문 직역의 번역 태도를 보여준다. 1797년(정조 21)에는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편하여 새로운 번역과 체재로 『五倫行實圖』(5권 4책)를 간행함으로써, 유교 윤리 구현을 위한 교화서인 행실도류 문헌의 간행이 완결되었다.

영조조에 『내훈』과 『소학언해』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새로 편찬되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흔히 『御製內訓』, 『御製小學諺解』로도 불리어 앞 시기의 책과 구별되는데, 1737년(영조 13)과 1744년(영조 20)에 각각 무신자로 간행되었다. 전자는 권1의 首題도 ‘御製內訓’으로 되었는데, 앞선 중간본들에 비해 번역의 문체와 어휘 등이 상당히 달라졌다. 후자는 원문의 수정과 함께 언해문도 더욱 직역되었는데, 이후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간행 유포된 『소학언해』는 모두 이 책을 底本으로 한 중간본들이다.

3.4.2 새로 편찬 간행된 교화서도 많았다. 1737년(영조 13)에 간행된 『女四書諺解』(4권 3책)는 앞의 『어제내훈』과 마찬가지로 영조의 명으로 편찬 간행된 여성 교양서이다. 또한 영조가 왕세자와 후대 임금에게 교훈을 내린 『御製常訓諺解』(1745, 영조 21)와 『御製訓書諺解』(1756, 영조 32), 백성들을 訓諭하는 『御製警民音』(1762, 영조 38)과 『御製百行源』(1765, 영조 41)도 간행되었다.³⁵⁾ 중국의 고전에서 덕행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뽑아 편찬한 『種德新編』(1758, 영조 34)이 언해되어 간행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영조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천명한 『闡義昭鑑諺解』(4권 4책, 1756, 영조 32), 정조 즉위를 전후한 시기의 逆謀 사건을 밝혀 忠道를 알리고자

34)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의 난상 언해가 국한문 혼용체에서 순한글체로 바뀐 것도 선조판(1581년판)부터였다.

35) 언해문이 앞의 두 책은 국한 혼용체, 뒤의 두 책은 순한글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상 독자층에 따라 언해문의 문체를 달리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明義錄諺解』(4권 4책, 1777, 정조 1)와 『續明義錄諺解』(2권 1책, 1778) 등, 단순 교양과 교화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건을 알리기 위한 책이 한글로도 번역 간행되었음은 이 시기 한글 문헌의 다양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임금이 관료나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문서인 『綸音』을 언해한 『綸音諺解』가 특히 이 시기에 많이 간행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757년(영조 33)의 『戒酒綸音』을 비롯하여, 정조조에만 『曉諭綸音』(1776, 즉위년), 『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등 24종의 윤음 언해가 간행되었다. 특히 정조는 국정 운영의 한 수단으로 윤음과 그 언해를 많이 반포하였다. 한문본 『윤음』과 그에 대한 『윤음언해』는 서로 分冊될 수 있는 체재로 되어 있고, 특히 언해문이 순한글체로 되어 있어 한글 전용 문헌의 이른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³⁶⁾

3.4.3 앞 시기의 譯學書들이 수정되어 다시 간행되거나, 새로운 역학서가 많이 간행된 것도 이 시기의 한 특징이다. 원간본 간행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時用에 맞는 역학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 이 시기에는 여러 차례 수정본이 간행되었다.

우선, 漢學書로는 『老乞大』류의 수정 간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 앞 시기의 『노걸대언해』가 일부 수정되어 1745년(영조 21) 평안 감영에서 중간되었다. 이후 교서관에서 새로 편찬한 『老乞大新釋』을 언해한 『노걸대신석언해』(3권 3책)가 1763년(영조 39)에, 司譯院에서 『重刊老乞大』를 간행하면서 함께 번역 간행한 『중간노걸대언해』(2권 2책)가 1795년(정조 19)에 각각 간행되었다. 한문본 『朴通事』를 時用에 맞추어 내용

36) 『천의소감언해』, 『종덕신편언해』, 『명의록언해』, 『속명의록언해』도 이와 같은 체재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분량 때문에라도 한문본과 언해본이 분책될 수밖에 없다.

을 수정한 『朴通事新釋』을 편찬하고, 그것을 언해한 『박통사신석언해』(3권 3책)도 1765년(영조 41)에 평안 감영에서 간행되었다. 사전으로는 앞 시기의 『역어유해』에서 빠진 것과 변한 것을 모아 편찬한 『譯語類解(補)』가 1775년(영조 51)에 나왔다.

倭學書로는 앞 시기의 『첩해신어』를 수정하여 간행한 이른바 改修本이 두 차례 간행되었다. 1차 개수본인 『改修捷解新語』(10권 12책)가 1748년(영조 24)에 간행되었고, 2차 개수본(不傳)은 1762년 무렵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또한 이 2차 개수본을 중간한 『重刊改修捷解新語』가 1781년(정조 5)에 간행되었다. 그 외에도 1790년(정조 14)에 『隣語大方』(10권 5책)이 편찬 간행되었다. 사전으로는 1780년대 초에 『倭語類解』가 간행되었다.

몽고어 학습서 곧 蒙學書를 한글로 번역한 것은 이 시기에 처음 나왔다. 『捷解蒙語』(4권 4책)가 1737년(영조 13)에, 『蒙語老乞大』(8권 8책)가 1741년(영조 17)과 1766년(영조 32)에, 『蒙語類解』(2권 2책)가 1768년(영조 44)에 사역원에서 각각 간행되었고(모두 不傳), 이들 蒙學三書를 1790년(정조 14)에 方孝彦이 수정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이 때 『蒙語類解(補篇)』도 추가로 함께 간행되었다.

淸學書로는 앞 시기인 1704년(숙종 30)에 간행되었던 淸語總解, 곧 『청어노걸대』, 『삼역총해』, 『팔세아』, 『소아론』이 이 시기에 모두 수정되어 다시 간행되었다. 1765년(영조 41)의 『新釋淸語老乞大』, 1774년(영조 50)의 『重刊三譯總解』, 1777년(정조 1)의 『新釋八歲兒』와 『新釋小兒論』이 그것이다. 사전으로는 1748년(영조 24)의 『同文類解』(2권 2책)와 1779년경의 간행으로 추정되는 『漢淸文鑑』(15권)이 있다.

3.4.4 兵學書로는 군사 조련의 기본 지침서로 여러 차례 重刊되었

37)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9월 15일자 기사 참조.

던 『병학지남언해』가 정조의 명으로 1787년(정조 11)에 壯勇營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이 책은 권 1, 2가 모두 雙行으로 언해되어 앞선 중간본들에 비해 체제상으로도 정제되어 있는데, 그 뒤로 각 지방 병영에서 복각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1790년(정조 14)에는 종합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한문본 4권 4책)가 편찬되고 그 언해인 『무예도보통지언해』(1책)가 간행되었다. 법의학서인 『增修無冤錄諺解』도 1796년(정조 20)에 간행되어³⁸⁾ 이듬해 지방 감영에서도 복각본이 나왔다.

1799년(정조 23)에 정조의 명으로 御醫 康命吉이 편찬 간행한 의서 『濟衆新編』(8권 5책)은 한문본이지만 권8의 「藥性歌」 부분에 藥物名이 한글로 표기된 것이 있어, 한글 문헌에 포함시킬 수 있다.

3.4.5 실학 사상에 바탕을 둔 음운학과 한글 연구를 배경으로, 많은 韻書가 편찬 간행되었다. 1747년(영조 23)에 朴性源이 편찬하여 간행한 『華東正音通釋韻考』(2권 1책)는 漢字마다 중국음과 국어음을 한글로 표음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운서로는 최초의 책이 된다. 특히 권말의 「諺文初中終三聲辨」에는 국어 음운에 대한 연구도 보인다. 1751년(영조 27) 洪啓禧의 『三韻聲彙』(3권 3책)는 한자 표음 방식은 앞의 책과 같으나, 동일한 韻에 속하는 한자의 배열을 한글 자모순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 특징이 있다. 「범례」에 실린 「諺字初中終聲之圖」는 당시에 사용되던 한글 자모의 수와 그 배열 순서를 보여준다. 정조의 명으로 李德懋 등이 편찬하여 1796년(정조 20)에 간행한 『奎章全韻』(2권 1책)은 우리나라 운서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漢字 배열이 한글 자모순을 따른 점은 『삼운성휘』와 같으나, 이전의 운서들이 入聲을 따로 배열한 데 비하여 이 책은 한 면에 平

38) 『增修無冤錄大全』의 具允明 발문을 근거로 『증수무원록언해』의 간년을 1792년(정조 16)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日省錄』(정조 20년 12. 8.)의 기록에 따라 1796년에 간행된 것으로 본다. 정재영 외(2000: 193) 참조.

上去入 四聲을 4단으로 수록한 특징이 있다. 이 책은 御定 운서의 권위를 가진 규범적 운서로서 이후 중앙과 지방에서 여러 차례 중간되어 널리 통용되었다. 이와 함께 간행된 『全韻玉篇』(2권)도 이후 우리나라 옥편 편찬의 典範이 되었다.

3.4.6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언해서가 간행된 시기이다. 그 밖의 한글 문헌도 적지 않다.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한글 문헌이 많이 편찬 간행된 것은 한글 사용층이 그만큼 두터워졌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흔히 영·정조 시기를 조선의 문예부흥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글 문헌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다. 일상의 실용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의 한글 문헌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문 사용층에서도 한글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도 정제된 활자와 목판에 의한 훌륭한 인쇄 기술은 조선 초기의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듯하다.

3.5 제5기(변혁기: 순조~갑오경장)

3.5.1 이 시기에 중앙에서 새로 언해하여 간행한 책은 매우 드물다. 1839년(헌종 5)의 『斥邪綸音諺解』를 비롯한 윤음의 언해가 3종 있을 뿐이다. 언해서의 대부분은 앞 시기 문헌의 중간본들이다. 이런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와서 道敎의 한 갈래인 關聖敎 계통의 서적이 10종 가까이 언해되어 간행되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는 19세기 당시에 도교가 이미 민간신앙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1852년(철종 3) 『太上感應篇圖說諺解』(5권 5책)가 간행된 이후, 고종조에 들어서는 정책적으로도 장려되어 1876년(고종 13)에 『南宮桂籍諺解』

가 나오고, 1880년에는 『三聖訓經』, 『過化存神』 등이 언해되어 간행되었다. 앞 시기에 간행되었던 『敬信錄諺釋』(1796년 양주 불암사판)을 다시 刷出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들 도교 언해서는 모두 언해문이 순한글체로 된 공통점이 있다. 한문 원전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언해문만으로 채책된 경우도 흔하다. 다만, 1883년(고종 20)의 『關聖帝君明聖經諺解』와³⁹⁾ 1886년의 『奇靈玄妙經諺解』는 한문 원문에 한글음과 구결을 달고 언해문과 짝짓는 전통적인 언해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경전 독송의 편의를 배려한 체재로 볼 수 있다.

3.5.2 조선 말기의 한글 문헌으로 坊刻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방각본은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것이므로, 해당 문헌에 대한 폭넓은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방각본은 한자 학습서, 교양서, 실용서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한글 방각본은 1804년(순조 4) 서울 廣通坊에서 간행된 『註解千字文』과⁴⁰⁾ 이듬해의 『新刊增補三略直解』 등이 그 초기의 것인데, 이들은 모두가 이전에 간행된 책의 重刊本이다. 방각본 가운데 특히 많이 간행된 것은 소설류였다. 坊刻小説은 서울에서는 1840년 무렵부터, 전주에서는 1850년 무렵부터 성행하였는데,⁴¹⁾ 전자로는 1840년(헌종 6)의 『임경업전』이,⁴²⁾ 후자로는 1857년(철종 8)의 『조웅전』이 가장 이른 간행으로 알려져 있다. 방각소설은 오각과 탈각이 심하고 판각이 거칠어 언어

39) 『명성경언해』의 刊年을 흔히 1855년(철종 6)으로 보기도 하나, 1883년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洪允杓(1993: 44-45) 참조.

40) 1752년(영조 28) 南漢 開元寺에서 洪聖源의 글씨를 版下로 하여 간행한 원간본이 있었다.

41) 20세기초까지 간행된 것으로 京版(안성판 포함) 방각소설 52종, 完版 방각소설 17종이 알려져 있는데, 중간본까지를 고려하면 版種은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柳鐸一(1989), 이창현(2000) 참조.

42) 刊記인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의 ‘庚子’년을 이창현(2000: 237-240)에서는 1780년에 비정하였으나, 1840년으로 보는 편이 더 온당하다.

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전문학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순한글만으로 된 문헌을 지역별로 대량 유포시킴으로써 한글 문헌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3.5.3 이 시기 후반에 天主教와 基督教 관련 서적이 한글로 간행되기 시작함으로써 한글 문헌 간행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8세기부터 천주교 서적의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간행된 것으로는 1864년(고종 1)의 『天主聖敎功課』,⁴³⁾ 『省察記略』, 『悔罪直指』, 『神命初行』, 『聖敎切要』 등이 그 초기의 것들이다. 이들은 방각소설과 유사한 판식과 체재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⁴⁴⁾ 이후 1883년(고종 20)에 『聖敎鑑略』, 1892년(고종 29)부터 1897년에 걸쳐 천주교 성경 『聖經直解』(9권 9책)가 신식 연활자로 간행되었는데, 이들 천주교 문헌들은 그 뒤로도 지속적인 重刊을 통하여 이후 우리나라 근대식 인쇄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기독교 문헌은 천주교 서적보다 조금 늦게 중국의 瀋陽에서 첫 간행을 보았다. 1881년(고종 18)에 선교사 로스(J. Ross)와 徐相崙 등이 文光書院에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鑄造해 온 한글 鉛活字로 『예수성교요령』, 『예수성교문답』이란 교리 문서를 신식 인쇄기로 간행한 것이 그 최초이다. 그 이듬해부터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예수성교성서요안내복음전서』 등 이른바 쪽복음서를 번역 간행하기 시작하여 1887년에는 최초의 기독교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를 완간하였다.⁴⁵⁾

43) 『천주성교공과』의 原刊을 1862년으로 보기도 하나, 여기서는 1864년의 刊記를 가진 『성찰기략』 등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처리해 둔다. 崔允煥(1976) 참조.

44) 이들은 1866년(고종 3)의 이른바 丙寅邪獄으로 베르뇌 주교, 崔炯 등 간행 관계자들이 처형되면서, 책판과 함께 대부분 소각되었다. 『고종실록』 3년 1월 18, 20, 23일자 기사 참조.

초기의 천주교, 기독교 한글 문헌들은 모두 한문본을 번역한 것인데, 원전 없이 순한글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이전 시기 언해문의 의고적인 번역투가 보이고, 특히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하느님, 예수, 주’ 등의 단어 앞에 한 칸을 비우는 이른바 擡頭法이 사용된 것도 있어, 이들이 전통적인 한글 문헌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人名 등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서양어 원전을 참고하여 한글로 전사하고, 새로운 활판 인쇄술을 도입하여 대량으로 간행한 점 등은 이후의 신식 한글 문헌 간행의 역사로 이어지는 架橋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5.4 이 시기로 한글 문헌은 전통적 언해서가 終焉을 고하게 된다. 도교서 언해는 그동안의 한글 문헌을 선도했던 언해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것일 뿐이었다. 한글 문헌은 이미 새로운 변혁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방각소설과 서양 종교서의 출현은 그동안 중앙의 官版이 주도했던 인쇄 문화를 급격히 퇴조시키고, 民間이 주도하는 한글 문헌 대중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글 문헌이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글 창제로부터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간행된 한글 문

45) 이 기독교계 한글 문헌들은 국내에서 간행된 것이 아니지만,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이므로 본고의 논의에 포함하였다. 이 시기에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朝鮮偉國字彙』(183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韓佛字典』(1880, 일본 요코하마) 등과는 그 간행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현에 대하여 그 간행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한글 문헌 간행의 경향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개별 문헌에 대한 누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 문헌 간행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였으나, 설명의 누락과 오류는 물론 서술 과정에서의 군더더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叱正이 있기를 바란다.

본문에서도 이미 시기별로 요약 설명을 베풀었으나, 여기에 다시 전체적인 경향과 특징을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갈음하기로 한다.

한글 문헌 간행의 제1기는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성종조 이전까지(1443~1469년)의 시기인데, 한글 문헌 간행의 초창기이므로 이 시기를 ‘요람기’라 이름하였다. 이 시기에는 왕실과 간경도감을 중심으로 한 불경의 언해서가 한글 문헌의 주종을 이룬다.

제2기는 성종조로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1470~1592년)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한글 문헌이 간행되므로 ‘성장기’라 부를 만하다. 불경과 교화서의 언해본이 지방에서도 간행되고, 중앙에서는 특히 유교 경서가 언해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제3기는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영조조 이전까지(1592~1724년)의 시기인데, 이 시기를 ‘변동기’라 이름하였다. 전란으로부터 비롯된 병학서의 간행과 전후 수습을 위한 의학서, 교화서, 외국어 학습서 등의 실용서가 집중적으로 나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제4기는 조선의 문예부흥기라 불리는 영조, 정조조(1725~1800년)이다. 가장 많은 언해본이 간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한글 문헌이 출현한 시기이므로 ‘융성기’라 이름할 만하다.

제5기는 순조조로부터 갑오경장까지(1801~1894년)의 시기인데, 전통적인 한글 문헌이 퇴조하고 새로운 기운이 싹트는 시기이므로 ‘변혁기’라 이름하였다. 민간에서는 방각본 한글 소설의 성행과 함께 한글

사용층이 대폭 확대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종교 서적이 번역되어 다량으로 간행되기 시작하면서 한글 문헌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내부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참고문헌

- 高永根. 1991. “삼강행실도의 번역연대.” 『김영배선생 회갑기념논총』. 77-84.
국립국어연구원. 1996-99.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4)」.
金完鎭. 1972. “世宗代の 語文政策에 대한 研究.” 『省谷論叢』(성곡학술재단) 3. 185-215.
남권희. 2002. “신간삼락언해(1711년)의 서지 분석.” 영남학(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 207-223.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규장각 소장 어문학자료(어학편 목록서지·해설)」.
安秉禧. 1983. “國語史資料의 整理를 위하여: 基本資料의 選定 및 複製와 관련하여.” 『韓國學文獻研究의 現況과 展望』. 서울: 아세아문화사.
安秉禧. 1985. “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민족문화추진회) 11. 7-26.
安秉禧. 1992. 「國語史 資料 研究」. 서울: 문학과 지성사.
安秉禧. 1998. “刊經都監의 諺解本에 대한 研究.” 『月雲스님 古稀紀念 佛敎學論叢』(동국역경원). 603-627.
安秉禧. 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柳鐸一. 1989.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李崇寧. 1978. “諺解 事業의 時代的 傾向에 대하여.” 『민족문화』(민족문화추진회) 4. 5-29.
이창현. 2000.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 태학사.
李忠九. 1990. “經書諺解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浩權. 2006. “諺解와 諺解書의 史的 考察.”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2. 49-61.
鄭 光. 1988. 「司譯院 倭學 研究」. 서울: 태학사.
정재영 외 11명. 2000. 「정조대의 한글 문헌」. 서울: 문헌과해석사.

千惠鳳. 1991.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崔允煥. 1976. “天主聖敎 功課의 原本.”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논문집」 2. 35-74.

최현배. 1942. 「한글갈」. 서울: 정음사.

최현배. 1961.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사.

洪允杓. 1993.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近代篇 I)」. 서울: 태학사.

洪允杓. 1994. 「근대국어연구(I)」. 서울: 태학사.

江田俊雄. 1934. “朝鮮語譯佛典に就いて.” 「青丘學叢」(青丘學會) 15. 136-166.

小倉進平. 1940. 「増訂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志部昭平. 1983. “李朝 刊經都監本 諺解樣式の 確立과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의 成立.” 「第1次 KOREA學 國際交流세미나論文集」(日本 KOREA學研究會). 3-13.

이호권(Lee, Hokwo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37-88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8-2. 서초현대아파트 101동 202호

전화 : 016-705-6058

전자우편 : sunroad@chol.com

원고접수일 : 2008. 10. 09.

게재결정일 : 2008. 10. 31.